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5, No. 3, 155–164, 2014
http://dx.doi.org/10.6107/JKHA.2014.25.3.155

www.khousing.or.kr
pISSN 2234-3571
eISSN 2234-2257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의 졸업 후 주거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Expectations on Post-college Housing and Parental Supports of Workforce Entry Preparers from Non-Capital Regions

이 현 정*
Lee, Hyun-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expectations of workforce entry preparers from non-capital regions on post-college housing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From July 26 to August 8, 2013,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juniors and seniors in colleges nationwide and 692 useable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college students who were from non-capital regions.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bout 44% of the respondents expected to live apart from their parents and other relatives within two years from their college graduation and 48% of them expected to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 (2) among those who expected to live apart from their parents and other relatives, 61% expected to be monthly renters; 75% expected to live in small-sized units such as studios; 85% expected parental support to afford post-college housing costs; (3) female respondents, younger respondents and/or respondents with a greater parent income showed more stronger expectation on parental support to afford housing costs; and (4) most respondents perceived influence of housing cost burden strong enough to affect their job choices.

Keywords : Non-Capital Regions, Housing Expectation,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Post-College Housing, Workforce Entry Preparers

주 요 어 : 비수도권, 주거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졸업 후 주거, 예비 사회진출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학생들은 미래 주택 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간주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주택상품의 개발에 적용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주거 선호도와 기대를 다각도에서 연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기 불황으로 대학 졸업 후 취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졸업 후 독립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초기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경제적 자립이 힘든 경우가 많다. 부모 집과 직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통근거리가 멀어서 부모 집을 떠나 새로운 거처를 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젊은 대학 졸업자들이 원하는 직장이 서울시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출신자보다 비수도권 출신자가 사회진출 후 부모 집이 아닌 곳에 독립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로 인하여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과 이들 부모는 청년가구의 주거 및 주거비 부담 문제를 더 크게 체감하게 된다(Lee, 2013; 최경환・예병정, 2014a). 이 때문에,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들 중에는 졸업 후 주거비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부모가 지원해 줄 것에 대한 비관적인 판단으로 수도권 지역 또는 부모 집과 다른 지역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사회진출초기자들의 주거 및 주거비 부담 실태 연구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의 졸업 후 주거 및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사회진출초기자의 주거 문제를 조명하여 사회진출초기자들을 위한 주거 및 주거지원 정책의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Ph.D.

Corresponding Author: Hyun-Jeong Lee,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hungbuk Natl. Univ., 52 Naesudong-ro, Heungdeok-gu,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E-mail: hlee@cbnu.ac.kr

본 연구는 2011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0014238).

이 논문은 2014년 (사)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II. 문헌 고찰

1. 사회진출초기자의 주거 문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시스템 특성 상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제외한 전세나 보증부 월세 모두 임차 계약 시에 목돈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주택 매매가격의 68% 수준에 이르며, 수도권의 경우 64% 수준으로 나타났다(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이를 해석하면, 전세 임대조차도 주택 구매 가격의 3분의 2 수준의 자금이 있어야 대출이나 외부 도움 없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보증부 월세 또한 '반(半)전세'라고 불릴 만큼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Goss, Beamish, & Lee, 2014; Lim, Han, & Lee, 2012; 신현우, 2014).

이러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은 사회에 갓 진출한 대학 졸업자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정서 상, 자녀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및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사람인, 2009, 2010).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거주 중인 취업 3년 이내의 사회진출초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 이상이 주거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과반수가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Han, & Lee, 2012).

이러한 청년의 주거 및 주거비 문제는 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 중산층이 되어가는 보편적인 순행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Baek, 2008; 최경환・예병정, 2014a) 이들 부모의 노후 생활 대비를 저해하는 등(Baek, 2008; Kang & Hong, 2013)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권지웅・이은진(2012)은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문제로 인하여 미래 동력으로서의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Chung(2012)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35세 청년 가구원의 분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해당 주택시장의 전세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청년 가구원의 신규 가구 형성 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 가구원의 신규 가구형성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분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커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과 같은 초기 목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임차가구의 매달 임대료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진출초기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한 취업포탈 사이트가 729개 기업의 2014년 신입사원 초봉을 조사한 결과, 대학 졸업 신입 사원의 초봉은 평균 2,363만원으로(사람인, 2014), 세금 공제 전으로 보더라도 월평균 200만원에 못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를 하면서 스스로 주거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하여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거나, 본인이 지불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구하다 보니 물리적 수준이 열악하거나 범죄로부터 취약한 동네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Lee, 2013; Lim, Han, & Lee, 2013; 서울시 청년허브・청년유니온・슬로워크, 2013; 신현우, 2014; 유선희, 2011; 윤현종, 2014; 최경환・예병정, 2014a, 2014b). 최근의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의 평균 월세는 전반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청년가구의 주거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월세는 오히려 상승하여(윤현종, 2014) 사회진출초기자를 포함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청년허브・청년유니온・슬로워크(2013)가 주거실태조사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민달팽이유니온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 중 56.5%만이 서울 출생이며,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많은 수가 고시원, 원룸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이외 지역, 특히 비수도권 출신의 청년들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주거라는 또 다른 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부모가 사회진출 초기의 주거 및 생활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사회진출이 순조롭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주거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독립 거주를 포기하고 부모 집에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등, 성인이 된 자녀의 사회진출에 부모의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관련 선행연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적 범위가 설정되지 않은 장래 주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는 많으나, 사회진출 초기의 주거에 대한 기대나 선호를 다룬 학술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 Baek(2008)은 대학 3-4학년을 포함한 서울시 거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분가 여부와 결혼 여부에 따라 주거 선호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 중 본 연구의 방법론적 기반이 된 것은 Lee (2013)의 연구로, 해당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소재 A대학의 학부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2년 이내 주거 및 주거비 원천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가 졸업 후 2년 이내에 부모나 친척 집이 아닌 곳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부모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졸업 후 주거비의 가장 큰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직장의 위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 소득 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이러한 주거비 부담의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 기존 연구의 방법론을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조사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예비 사회진출자의 주거 기대에 대한 기존 연구(Lee, 2013)에 기초하여 개발하였으며, 대상자 선별 문항, 졸업 후 2년 이내 주거에 대한 기대, 일반 사항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졸업 후 2년 이내 주거에 대한 기대는 거주유형, 거주 지역, 주택 유형, 점유 유형, 주거비용, 주거비 원천, 주거비 부담의 영향력 등 기존 연구의 조사 내용을 포함하며, 졸업 직후 거주유형을 예상하는 이유 및 주거비 부담과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을 추가하였다.

졸업 후 주거에 대한 시간적 범위를 졸업 후 2년 이내 주거로 제한한 것은 앞선 Lee(2013)의 연구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의 필요한 시간과 사회진출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할 경우 주거 점유 특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1.6개월로(한국고용정보원, 2013) 졸업 후 주거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할 때 이를 고려하였다. 또한 사회진출초기자가 독립 거주할 경우 전세나 월세 등 임차 거주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전·월세 임차는 보편적으로 2년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적 범위를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졸업 직후 첫 주거에 대한 기대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2.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대상자는 국적, 학력, 졸업 후 진로계획, 전공, 현재 부모 집 위치 등 다섯 가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최근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점과, 국적이 주거 선호나 주거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한국 국적자로 제한하였다.

둘째, 학력은 조사 직전인 2013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국내 4년제 대학 학부과정 3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선행연구(Lee, 2013)에서는 학부과정 재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학부 1, 2학년들의 경우 졸업 후 진로나 주거에 대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대학 졸업 후 진로는 취업을 예상하고 있는 자만을 대상자로 제한하였다. 넷째, 취업 조건 및 보수 등에서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 전공(의학, 법학, 신학, 교육학, 사범계 등)자는 제외하였다.

다섯째, 선행연구(Lee, 2013)에서는 부모 집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비수도권 소재 4년제 1개 대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지역적인 측면에서 연구 결과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집의 위치가 국내인 자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위의 다섯 가지 조사 대상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조사 전문업체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설문 최종 응답자 중 현재 부모 집 위치를 기준으로 비수도권 출신 응답자는 총 692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와 카이제곱을 이용한 교차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이변량 상관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21.0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개요

응답자의 62%가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미혼이었다. 평균 나이는 23.6세, 학년[1]은 3학년과 4학년 이상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7%는 부모 소득이 월평균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응답자의 부모 집 위치는 <Table 2>과 같다.

응답자의 학교 위치 및 학기 중 거주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응답자 중 61%는 부모 집과 같은 광역시 또는 도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일반적인 대학의 하계방학 기간인 7-8월 중에 진행되었고, 대학생들의 학기 중과 방학 중 거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거주유형이 아닌 직전 학기인 2013년도 1학기의 거주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직전 학기에 부모 집에 거주한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떨어져서 월세로 자취한 경우가 18%, 학교 기숙사에 거주한 경우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2. 졸업 후 2년 이내 주거에 대한 기대

졸업 후 2년 이내 거주유형은 부모 집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359명(52%), 부모, 형제 또는 친척집이 아닌 곳에 독립하여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306(4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졸업 후 2년 이내

1)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학년을 조사하였다.

Table 1. *Overview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263	38.0
Female	429	62.0
TOTAL	692	100.0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681	98.4
Married (spouse present)	10	1.4
Widowed, divorced or separated	1	.1
TOTAL	692	100.0
Age		
23 years or less	374	54.0
24 to 25 years	195	28.2
26 years or above	123	17.8
TOTAL	692	100.0
Mean (SD)	23.6 years (2.03)	
Academic year (last semester)[a]		
Junior	348	50.3
Senior or above	344	49.7
TOTAL	692	100.0
Parents' monthly income		
No income	20	2.9
1~2,000K wons	115	16.6
2,000K~3,999K wons	302	43.6
4,000K~5,999K wons	161	23.3
6,000K wons or more	94	13.6
TOTAL	692	100.0

[a]For students who were on a leave of absence in previous semester, academic year when they would return was asked.

Table 2. *Location of Parents' Residences*

Location	*n*	%	Location	*n*	%
Busan	121	17.5	Gyeongnam	78	11.3
Daejeon	51	7.4	Gyeongbuk	61	8.8
Daegu	92	13.3	Jeonnam	39	5.6
Ulsan	34	4.9	Jeonbuk	47	6.8
Gwangju	41	5.9	Gangwon	29	4.2
Chungnam	49	7.1	Jeju	10	1.4
Chungbuk	40	5.8	TOTAL	692	100.0

에 독립하지 않고 부모, 형제 또는 친척 집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386명은 졸업 직후 바로 독립할 자금이 부족한 것(243명, 63%)과 독립할 자금은 있지만 주거비를 아껴서 저축을 늘리기 위한 것(59명, 15%) 등을 졸업 후 독립하여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졸업 직후 부모, 형제 또는 친척 집이 아닌 곳에서 독립 거주 예상 여부가 성별, 나이, 학년(3학년, 4학년 이상), 부모 소득 수준(월평균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400만원 이상), 그리고 직전 학기 독립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카이제곱을 이용한 교차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이나 나이, 학년, 또는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전 학기 거주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직전 학기에 부모, 형제, 친척 집이 아닌 곳에서 독립하여 거주한 응답자일수록 졸업 후에도 독립하여 거주할 것을 더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5>.

Table 3. *School Location and In-Semester Living Arrangement*

Characteristic	*n*	%
School location		
Seoul	32	4.6
Incheon or Gyeonggi Province	21	3.0
Other		
Same area with parents' residence[a]	421	60.8
Different area with parents' residence[a]	218	31.5
TOTAL	692	100.0
Living arrangement in previous semester		
Lived with parents	414	59.8
Lived with brothers or sisters	10	1.4
Lived with other relatives	4	.6
Lived apart from parents or other relatives		
School dormitory	79	11.4
Jeon-se rental	36	5.2
Monthly rental[b]	128	18.5
Boarding	13	1.9
Other	8	1.2
TOTAL	692	100.0

[a]Same or different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with parents
[b]Both monthly rentals with or without deposit

Table 4. *Expectation on Post-College Living Arrangements*

Living arrangement	*n*	%
Live with parents	359	51.9
Live apart from parents or other relatives	306	44.2
Live with brothers or sisters	19	2.7
Live with other relatives	8	1.2
TOTAL	692	100.0

Table 5. *Last Semester's Living Arrangement and Expectation on Post-College Living Arrangement: 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

Last semester living arrangement	Post-college living arrangement		TOTAL
	Live with parents or other relatives	Live apart from parents or other relatives	
Lived with parents or other relatives	304 (71.0%)	124 (29.0%)	428 (100.0%)
Lived apart from parents or other relatives	79 (30.9%)	177 (69.1%)	256 (100.0%)
TOTAL	383 (56.0%)	301 (44.0%)	684 (100.0%)

Note. Percentages in parentheses are percents within each of living arrangements in last semester. $\chi^2(1)=104.894$, $p= .000$

졸업 후 2년 이내 부모, 형제, 친척 집이 아닌 곳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306명이 기대하는 거주 지역과 점유유형, 주택유형은 <Table 6>과 같다. 졸업 직후 독립 거주를 예상한 306명 중 147명(48%)은 서울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였으며, 점유유형은 월세 자취(186명), 전세(86명), 월세 하숙(21명) 순이었다. 주택유형은 응답자의 약 75%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소형주택을 기대하였으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24명), 사원 아파트나 기숙사(21명), 고시원, 고시텔(17명) 순이었다.

Table 6. *Expectations on Locations, Tenure Types, and Housing Types of Post-College Housing*

Item	*n*	%
Location		
Seoul Metropolitan area	147	48.0
Other area in Korea		
Same area with parents	38	12.4
Different area with parents	119	38.9
Foreign location or other	2	.7
TOTAL	306	100.0
Tenure type		
Monthly rental	186	60.8
Jeon-se rental	86	28.1
Boarding	21	6.9
Home purchase	8	2.6
Other	5	1.6
TOTAL	306	100.0
Housing type		
Studio, efficiency or *Officetel*	228	74.5
Multifamily housing (including apartment)	24	7.8
Dormitory	21	6.9
Gosi-won or *Gosi-tel*	17	5.6
Single-family housing	4	1.3
Share housing	2	.7
Does not matter	10	3.3
TOTAL	692	100.0

졸업 직후 독립 거주를 예상한 306명에게 졸업 후 주거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주요 자금 원천을 2가지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졸업 후 주거비의 주요 원천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기대하는 것은 본인의 자금(80.4%)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72.9%)이었다<Table 7>.

주요 자금 원천이 아니더라도 그 밖의 문항을 통하여 파악된 졸업 후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응답자를 모두 포함하면, 졸업 후 독립 거주를 예상한 응답자의 대부분인 298명(97%)이 졸업 후 주거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본인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260명(85%)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이나 나이, 학년(3학년, 4학년 이상), 부모 소득 수준(월평균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400만원 이상)에 따라서 졸업 후 2년 이내 주거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카이제곱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과 나이,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여자 응답자가 남자 응답자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경향이 나타났는데<Table 8>, 이는 이전 연구(Lee, 201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Table 7. *Expectation on Sources of Post-College Housing Expenses*

Source	*n*	%
My own savings	246	80.4
Parental support	223	72.9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64	20.9
Supports from siblings	19	6.2
Live without rent payment	9	2.9
Money borrowed from relatives or friends	6	2.0

Note. Percentage presented are percent of total 692 respondents. Total of percentages exceeds 100 as each respondent was asked to choose up to two major sources of housing costs they expected.

Table 8. *Gender and Expectation on Parental Support to Afford Post-College Housing Costs: 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

Gender	Parental support		TOTAL
	Expected	Not expected	
Male	96 (78.0%)	27 (22.0%)	123 (100.0%)
Female	164 (89.6%)	19 (10.4%)	183 (100.0%)
TOTAL	260 (85.0%)	46 (15.0%)	306 (100.0%)

Note. Percentages in parentheses are percents within each gender.
$\chi^2(1)=7.708$, $p= .008$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어린 응답자일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1세 증가할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는 82.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9>. 이는 오히려 이전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Table 9. *Age and Expectation on Parental Support to Afford Post-College Housing Costs: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	Exp(B)	Wals	*df*	*p*	Model test		
					χ^2	*df*	*p*
Age	.825	6.464	1	.011	6.343	1	.012

Note. Dependent variable was whether or not expected parental support to afford post-college housing costs (where, 0 = not expected, 1 = expected).

부모 소득이 월평균 2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부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에 비하여 졸업 후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0>.

Table 10. *Parents' Income and Expectation on Parental Support to Afford Post-College Housing Costs: 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

Parents' monthly income (10,000 wons)	Parental support		TOTAL
	Expect	Not expect	
Less than 200	39 (73.6%)	14 (26.4%)	53 (100.0%)
200~399	115 (86.5%)	18 (13.5%)	133 (100.0%)
400 or more	106 (88.3%)	14 (11.7%)	120 (100.0%)
TOTAL	260 (85.0%)	46 (15.0%)	306 (100.0%)

Note. Percentages in parentheses are percents within each monthly income group.
$\chi^2(2)=6.674$, $p=.036$

3. 주거비 부담이 직장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전체 69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직장 선택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영향력 수준을 6점 라이커트 척도(1: 전혀 영향 없음~6: 매우 영향이 큼)로 측정한 결과, 평균이 4.3(SD=1.22)으로 직장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주거비 부담이 직장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이 응답자의 성별, 나이, 학년, 부모 소득 수준, 졸업 후 2년 이내 독립 거주 기대 여부, 졸업 후 2년 이내 주거비 지불 위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ANOVA, 이변량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자 응답자(4.39)가 남자 응답자(4.16)보다 ($t(493.442)=-2.341$, $p=.020$), 졸업 후 2년 이내에 부모, 형제 또는 친척 집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4.47)가 독립 거주를 예상한 응답자(4.09)보다($t(690)=-4.090$, $p=.000$) 주거비 부담의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이나 학년, 부모 소득 수준, 졸업 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주거비 부담 및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

졸업 후 주거비 부담과 주거 선택,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에 관련된 9개의 진술에 대한 동의 수준을 6점 라이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음~6: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Table 11>. 그 결과, 졸업 후 주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주거비 부담 능력 수준에 맞는 주거를 선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거비가 본인의 지불능력 수준보다 너무 비쌀 경우,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저렴한 주거를 선택하거나 주거비를 분담하기 위하여 친구나 동료 등과 함께 살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 후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를 꼭 갚겠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나 다른 가족이 졸업 후 경제적 지원을 해줄 여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졸업 후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이미 모았거나, 졸업 때까지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11. *Perceptions on Post-College Housing Costs*

Item	*n*	Mean	SD
It is important to find a home that I can afford on my own income.	692	4.92	.937
If I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my parents or other relatives, I will pay it back, no matter how long it takes.	692	4.74	1.049
If I cannot afford my housing costs, I would lower my expectations and choose more affordable housing.	692	4.54	.984
I am willing to live with friends or colleagues to afford housing costs.	692	4.00	1.292
If I cannot afford my housing costs, it would be acceptable to receive support from my parents or other family.	692	3.78	1.189
My parents can support me until I can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after college graduation.	692	3.69	1.239
If I cannot afford my housing costs, it would be acceptable to get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	692	3.26	1.387
If I cannot afford my housing costs, I would live with parents or other relatives even with giving up the job opportunities I wanted.	692	3.08	1.320
I already have enough savings to afford my post-college housing expenses, or can save the amount until college graduation.	692	2.91	1.268

Note. Measured in 6-point Likert-type scale (1=very disagree, 6=very agree)

이러한 인식이 응답자의 성별, 나이, 부모 소득 수준, 졸업 후 2년 이내 독립 거주 기대 여부, 졸업 후 2년 이내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여부 등의 특성과 관계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 이변량 상관분석, 일원배치 ANOVA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의 5가지 특성 모두가 주거비 부담 및 주거 선택,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수준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과 인식의 관계를 요약하면<Table 12>, 남자 응답자는 여자 응답자보다 졸업 후 주거비를 감당할 경제력을 이미 갖추었거나 졸업 때까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많은 응답자일수록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독립을 포기하거나, 졸업 후 주거비를 감당할 경제력을 이미 갖추었거나 졸업 때까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을 것과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나, 주거비 분담을 위한 동거에는 부정적인 인식 수준을 보였다.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이거나 졸업 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응답자일수록 부모나 다른 가족이 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더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able 12. *Summary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Regarding Post-College Housing Costs*

Item[a]	Gender[b]	Age[c]	Parents' monthly income (10,000 wons)[d]	Expectation to live apart from parents after college[b]	Expectation for parental support after college[b]
It is important to find a home that I can afford on my own income.	-	-	-	-	Not expect (5.20) > Expect (4.86) (t(304)=-2.191, p=.029)
If I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my parents or other relatives, I will pay it back, no matter how long it takes.	-	-	-	-	-
If I cannot afford my housing costs, I would lower my expectations and choose more affordable housing.	-	-	-	-	-
I am willing to live with friends or colleagues to afford housing costs.	-	Negative (-) correlation (r(692)=-.081, p=.033)	-	-	-
If I cannot afford my housing costs, it would be acceptable to receive support from my parents or other family.	-	-	400 or more (4.04) > 200 to 399 (3.74) > Less than 200 (3.37) (F(2, 420.07)=13.692, p=.000)[e]	Expect (3.89) > Not expect (3.69) (t(690)=2.172, p=.030)	Expect (4.08) > Not expect (2.83) (t(55.254)=6.018, p=.000)
My parents can support me until I can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after college graduation.	-	-	400 or more (4.22) > 200 to 399 (3.53) > Less than 200 (3.04) (F(2, 431.56)=46.314, p=.000)[e]	-	Expect (3.82) > Not expect (3.00) (t(304)=4.060, p=.000)
If I cannot afford my housing costs, it would be acceptable to get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	Male (3.64) > Female (3.02) (t(690)=5.837, p=.000)	Positive (+) correlation (r(692)=.186, p=.000)	-	Expect (3.44) > Not expect (3.11) (t(690)=3.102, p=.002)	Not expect (3.87) > Expect (3.37) (t(304)=-6.443, p=.028)
If I cannot afford my housing costs, I would live with parents or other relatives even with giving up the job opportunities I wanted.	-	Positive (+) correlation (r(692)=.076, p=.047)	-	Not expect (3.35) > Expect (2.72) (t(690)=-6.443, p=.000)	-
I already have enough savings to afford my post-college housing expenses, or can save the amount until college graduation.	Male (3.22) > Female (2.72) (t(690)=5.065, p=.000)	Positive (+) correlation (r(692)=.117, p=.002)	400 or more (3.10) > 200 to 399 (2.82) or less than 200 (2.72) (F(2, 689)=4.596, p=.010)	Expect (3.09) > Not expect (2.76) (t(690)=3.433, p=.001)	Not expect (3.59) > Expect (3.01) (t(304)=-3.048, p=.003)

[a]Measured in 6-point Likert-type scale (1=very disagree, 6=very agree)
[b]Results from independent sample t-tests. Values presented in parentheses next to each group is the group mean.
[c]Results from Pearson's bi-variate correlation analyses. "Positive (+) correlation" means that the perception score increases as age increases. "Negative (-) correlation" means that the perception score decreases as age increases.
[d]Results from one-way ANOVA and Duncan's post hoc tests. Value presented in parentheses next to each income group is the group mean.
[e]As homogeneous variance assumption was violated, means were compared using Brown-Forsythe method.

한 졸업 후 주거비를 감당할 경제력을 이미 갖추었거나 졸업 때까지 그러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졸업 후 2년 이내 독립 거주를 기대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졸업 후 주거비를 감당할 경제력을 이미 갖추었거나 졸업 때까지 그러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낙관적이었으며, 졸업 후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모나 다른 가족의 지원을 받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 사회진출초기자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사회진출초기자들의 주거 및 주거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예를 제시하고 기대하는 지원 방안을 2가지까지 중복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원 방안은 회사 사원 아파트나 기숙사, 또는 그 외 저렴한 일반 주거의 확대 공급과 전세금, 월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나 저금리 대출 상품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Table 13. *Expectation on Housing Support for Early-Career Professionals*

Support program	*n*	%
Extended supply of employee apartments or dormitories	373	53.9
Extended supply of other affordable housing units	275	39.7
Jeon-se deposit subsidy	161	23.3
Monthly rent deposit or rent subsidy	161	23.3
Low-interest loan products for *Jeon-se* deposit	87	12.6
Low-interest loan products for rent deposit or rent	48	6.9
Tax deduction	29	4.2

Note. Percentage presented are percent of total 692 respondents. Total of percentages exceeds 100 as each respondent was asked to choose up to two housing support programs they expected.

V. 요약 및 결론

1. 결과의 해석 및 적용

본 연구는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의 졸업 후 주거 및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사회진출초기자의 주거 문제를 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적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 넘는 응답자가 졸업 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부모, 형제 또는 친척 집이 아닌 곳에 독립하여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의 85% 이상이 졸업 후 주거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등, 대학생들의 물리적, 경제적 독립은 졸업 후에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진출초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연구(Baek, 2008; Lee, 2013; Lim, Han, & Lee, 2013)나 비학술 조사(사람인, 2009, 2010)에 반영된 상황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졸업 후에 부모나 형제, 친척 집에 거주할 것을 예상한 응답자가 답한 가장 주된 이유가 졸업 직후 바로 독립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직장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시스템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우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월세 시장에서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무보증 월세를 제외한 전세와 보증부 월세 모두 임대차 계약 시에 목돈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전세 보증금의 경우 주택 구매 가격의 3분의 2에 달할 만큼 매우 높다. 또한 보통 1개월, 많게는 1년의 월세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미국의 월세 시스템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월세 보증금은 매우 비싼 편에 속한다(Goss, Beamish, & Lee, 2014).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진출초기자를 포함한 청년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도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취업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주요한 이유로 본인의 낮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단순히 '부모가 지원해 주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사람인, 2009) 이들의 부모 세대 연령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이들 베이비부머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한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정경희, 2012). 이와 같이 청년들의 낮은 경제적 자립 의지와 부모 세대의 자녀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맞물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늦추어 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청년들이 주거비 문제에 있어서 부모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부모가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도 결국 축적된 자금 없이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주거비와 생활비 수준의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주택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거나, 정책 차원의 보조 없이는 사실 사회진출초기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자립을 강요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둘째, 부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일수록 졸업 후 독립 거주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더 낙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나 가족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규 가구 형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커지기 때문에 청년 신규 가구 형성 확률이 높아진다는 Chung(2012)의 분석 결과와도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녀 대학 졸업 후 주거를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자녀의 독립 거주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직장 선택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셋째,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가 가장 선호하는 사회진출초기자 주거 지원 방안은 저렴한 주거의 확대 공급과 주거비의 금전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2년 이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거유형에서는 사원 아파트 비율이 7%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던 것에 반하여, 사회진출초기자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약 54%가 회사 사원 아파트나 기숙사 등의 주거를 확대 공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력으로 주거를 선택해 본 경험이 없거나 드문 대학생들이 졸업 후 타지에서 주거를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 주거 선택 시에 회사에 대한 근접성 및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 문제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사회진출초기자 주거 지원 방안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이나 소득공제 혜택 등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저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선호가 낮게 나타난 것은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받을 경우, 당장의 경제적 곤란은 해결하더라도 이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장기적으로 안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가 낮은 이유는 소득공제는 당장 시급한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지 못 하기 때문이거나,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은 아직 소득공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는 주택의 임대 거래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임대료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여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월세 물량이 급감하거나, 증가하는 임대인의 세금 부담만큼 월세가 급등할 우려가 크다(류찬희, 2014; 최병태, 2014). 결국 월세 소득공제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결론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하여서도 밝혀졌던 바와 같이, 사회진출초기자를 포함한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는 이들의 늦은 결혼과 저출산, 부모세대의 노후대비 저해, 사회적 갈등 등 많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직장 선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진출초기자들 및 이들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들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의 주거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은, 먼저 지출을 한 뒤 후에 소득공제와 같이 부분적,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받거나 또다른 빚을 낳는 대출이 아닌, 저렴한 주거의 확대 공급과 주거비 인하 등 직접적이며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가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3.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사회진출초기자 주거문제를 비교하는 큰 연구의 일환으로 대학 3-4학년들의 졸업 후 주거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사회진출초기자의 주거문제를 간접적으로 조명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 사회진출초기자의 실질적인 주거 문제를 파악하고, 임대주택 시스템 및 사회진출초기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에 대한 현실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 졸업 후 독립 거주 및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여부, 그리고 주거비 부담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응답자가 남자 응답자에 비하여 자립에 대하여 더 부정적이며 더 부모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성별 차이가 청년의 물리적, 경제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러한 영향력 수준을 결정짓는 인자에 대한 더 심도있는 조사와 분석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과 취업 지도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1. Baek, D. (2008). *A study on housing preferences of career beginners: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Konkuk University.
2. Chung, E. (2012). Housing costs and household formation of young adul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18*(2), 19-31.
3. Goss, R. C., Beamish, J., & Lee, H. (2014, April). *Housing for young professionals: Implic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Presentation at the 3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Real Estate Society.
4. Kang, S., & Hong, H. (2013). A study on awareness and housing preferences about public rental housing among career starting persons. *Proceedings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KHA, 2013*, 397-402.
5.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3. 26.). KB 지식 비타민: 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전・월세 시장의 변화. https://www.kbfg.com/kbresearch/processFileDownloadManager.do?file_name=20140326091810_1.pdf&alias=vitamin&viewFunc=default_details&categoryId=3&subCtgId=&menuId=&boardId=305&articleId=1002666
6. Lee, H. (2013). Workforce entry preparers' post-college housing expectations and perception of housing cost burde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4), 29-37.
7. Lim, E., Han, S. J., & Lee, H. (2013). Housing cost burdens of young professionals i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related companies. *Proceedings of 2013 Summer Conference of KAHE*, 245-246.
8. 권지웅・이은진 (2013).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 제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자료집, 561-578.
9. 류찬희. (2014. 2. 27.). 집주인, 세금 느는 만큼 월세 올릴 수도.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27002007
10. 사람인 (2009. 1. 14.). 2030 직장인 21%, 취업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 받아. http://www.saraminhr.co.kr/open_content/pr/press_release.php?sno=60&group=basic&code=B2&category=&&field=all&search=%B0%E6%C1%A6%C0%FB&abmode=view&no=1133&bsort=&bfsort=wdate&listno=85
11. 사람인 (2010. 6. 8). 직장인 5명 중 1명, 취업하고도 부모에게 손 벌려. http://www.saraminhr.co.kr/open_content/pr/press_release.php?sno=50&group=basic&code=B2&category=&&field=all&search=%B0%E6%C1%A6%C0%FB&abmode=view&no=1433&bsort=&bfsort=wdate&listno=94
12. 사람인 (2014. 3. 26.). 대졸 신입 연봉, 고졸보다 평균 333만원 더 많아. http://saraminhr.co.kr/open_content/pr/press_release.php?sno=20&group=basic&code=B2&category=&&abmode=view&no=500884&bsort=&bfsort=wdate&listno=2144
13. 서울시 청년허브・청년유니온・슬로워크 (2013. 11. 6.).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3] 청년, 어떻게 살고 있나. http://

youthnews.tistory.com/attachment/cfile1.uf@2565594E5279B461112AF6.pdf
14. 신현우 (2014. 2. 10.). '빈곤의 악순환' 월세살이 사회초년생, 주거복지서도 소외.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936404
15. 유선희 (2011. 9. 14). 꿈꾸던 직장인 됐지만... 월급 150만원 받아 월세로 70만원 내.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6126.html
16. 윤현종 (2014. 4. 4.). [벼랑끝 몰린 청년주거] 치솟는 월세에 시름 자립청년 "주거복지, 먹는 건가요?".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4000597&md=20140407003921_BK
17. 정경희 (2012. 5). 베이비 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 생활 전망. 보건복지포럼, 40-49.
18. 최경환・예병정 (2014. 4. 16.a). [주거난에 시달리는 'N세대'] (上) 지방에서 태어난 죄? 'In 서울' 동시에 빚쟁이.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4041501001579200083 42&cDateYear=2014&cDateMonth=04&cDateDay=14
19. 최경환・예병정 (2014. 4. 16.b). [주거난에 시달리는 'N세대'] (上) 청년・독거노인의 전유물.. '단칸방' 다시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4041501001580100083 47&cDateYear=2014&cDateMonth=04&cDateDay=14
20. 최병태 (2014. 3. 2.). '월세 소득 과세' 대책 후 임대차시장 혼란.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022131445&code=920202
21. 한국고용정보원 (2013. 4. 10.). 대졸자 희망연봉은 2,604만원, 실제연봉은 2,208만원. http://www.keis.or.kr/common/file/NR_download.do?id=61aed084-4724-4d07-ba55-cdb1e94c345c

접수일(2014. 4. 24)
게재확정일자(2014. 6. 2)